

# 공통지원서 사이트·이메일 체크 잊지말자

## 원서 접수 확인

그동안의 입시경험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한인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우리 자녀를 우수한 인재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적절한 선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이끌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2 가을학기 입시 지원서 제출이 대부분 마감된 가운데 현 수험생은 물론 앞으로 입시를 치를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지원서 제출 때 유의해야 할 점, 특히 제출과 접수에 대해 알아보자.

### 원서 접수 확인방법

일단 1월15일이 되면 한인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립대학들이 지원서를 마감한다.

예전에는 지원서를 제출한 뒤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입학사무처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요즘은 공통지원서 사이트를 보면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방법은 먼저 공통지원서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한 후 왼쪽에 있는 메뉴바에서 'My College'를 클릭하면 자녀가 선택한 대학 리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각 대학 이름 옆에 3가지 다른 모양의 표시가 나오는데, 이것을 'Status Legend'라고 부른다.

만약 빨간색 역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직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노랑색 네모 모양이 표시되어 있으면 시작은 했지만 완성되



지원서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모든 절차가 완료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뉴욕타임스)

## 15일 사립대 접수마감 'My College' 클릭 한눈에 지원서 이상 있거나·페이먼트 미납 등 확인도

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삼각형의 그린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비로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출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난 뒤 지원한 각 대학을 클릭하면 '뷰 디스 어플리케이션' (View This Application)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대학이 다운로드한 날짜가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이 나온다면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학에 확인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View Application에서 한 항목이라도(예를 들면, 추가 지원서 작성에 이상이 있거나, 페이먼트 미납, school form 등) 완성되지 않으면 곧바로 확인 할 수 있다.

### 이메일을 체크한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점검 노력이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원서를 접수했거나, 접수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알려준다.

실령 대학에서 접수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내용의 이메일이 올지 모르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둘러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이메일을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최종 점검 부모도 참여해야

몇 년 전 한 학생은 아예 입시 자체를 망친 적이 있었다.

자신은 분명히 준비했던 모든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통지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의 부탁을 받고 대학에 제출했다는 공통지원서를 살펴보니 6개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에세이와 추가 지

원서도 업로드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signature 파트에서 발견됐다. 완전하게 끝을 맺지 않아 그 학생 대학 이름 옆에 모두 노란색 네모로 '진행중' (in process)이라고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는 지원서 제출이 완료된 것이 아닌 셈이었고, 심사의 대상도 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학생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자신의 지원서를 체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어서 본인을 탓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비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부모의 노련함이 이럴 때 빛을 발하게 된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부모

### 조기합격자 정시지원

지난 12월 조기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는 다시 정시전형에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버드에 합격한 한인 1군은 프린스턴과 예일에 정시전형을 지원했고, 스탠포드에 합격한 J양도 프린스턴과 하버드, 유펜, 브라운 등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남들이 보면 꿈의 대학에 합격했는데, 왜 또다시 입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것일까.

이런 현상은 비록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학비보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합격한 대학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면 학비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대학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학생들은 한인 학생들이지만, 타인종 학생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 분명하며, 이를 합하면 제법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추세는 가뜰이나 복수지원 증가로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명문 대학들의 정시전형 합격률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들이 자녀의 에세이를 봐주는 힘을 갖지만, 이같이 공통지원서 내용과 제출에 대한 점검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도움은 자녀의 입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도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www.TheAdmissionMasters.com  
(909)396-7777



제니 김

(현 스탠포드대 입학사정관)

### 1면서 계속

## 대입준비 팁

입시준비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대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나중에 사립대 지원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CSS 프로파일 역시 이 기관이 담당한다.

웹사이트: collegeboard.org

### 유에스 뉴스(US News & World Report)

이 미디어는 해마다 미 전국 대학 및 대학원 랭킹을 발표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학별 지원자들의

아카데미 수준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며, 기타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usnews.com/education

### 칼리지 뷰(College View)

대학을 고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조 및 대학별 전공 등 다양한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칼리지 서치(college search)는 제법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밖에 입시에 관한 상식과 조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웹사이트: collegeview.com

### 워먼스 칼리지 콜리전

(Women's College Coalition)

이 사이트는 미국 내 여대들만들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여대를 생각하고 있는 여자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womenscolleges.org

### NCAA와 NAA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와 NAA(National Association Intercollegiate Athletics)는 모두 스포츠와 관련된 것으로,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살펴봐야 하는 사이트다.

웹사이트: ncaa.org, naia.cstv.com

### 칼리지 클릭 TV(College Click TV)

미국 대학생 및 교수들의 인터뷰 내

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사실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웹사이트: collegeclicktv.com

### 지원서 읽어보기

입시에서 사용하는 지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립대들이 사용하는 공통원서(common app)이고,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UC 지원서다. 이 지원서를 한 번 카피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자 하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카운슬러와 친해지자

학교 카운슬러는 입시와 장학금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입시를 준비할 때는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다.

때문에 아직 카운슬러와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자주 만나 입시준비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카운슬러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학생이 지닌 능력이 맞는 가장 적당한 대학과 입학준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입시 지원서 작성 막판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많은 교류를 가지는 것이 여러 모로 힘이 된다. 카운슬러는 너무 많은 학생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자금 무상 보조 관련 세미나

대상: 10,11,12학년 및 대학생 학부모

VA 일시: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ICW(International College of Washington)  
7700 Little Liver Tnpk  
Suite #302-A(3rd Floor)  
Annandale, VA 22003

MD 일시: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뉴욕 아카데미  
856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예약 및 문의: 703-576-7803

좌석이 한정되었사오니 미리 예약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약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 교육부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12 대학학자금 준비는 AGM과 상담하세요!

AGM에서 대학 학자금의 길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대학 무상 학자금?

난 AGM에서 해결했는데...

###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FAFSA/CSS Profile만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1학년도 자료대비 각 대학별로 무상 및 유상보조금의 평균수혜내역이 개인당 수천불 혹은 그 이상 잘못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보조금내역의 검토와 해당대학으로 Negotiation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AGM에서는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877-212-0011

팩스: 1-866-717-0014

7700 Little River Turnpike #407  
Annandale, VA 22003

### AGM College Planning이 하는 일

- 각 대학별 무상학자금 보조 안내
- 학자금 무상 보조를 통한 현명한 대학 선택 안내
- FAFSA 신청 안내
- CSS Profiling 신청 및 Business / Farm Form 작성
- 전반적인 College Financial Planning 을 통한 가정분담금 (EFC)절감 대책마련
- 재정 보조금 내역검토 및 대학과 Negotiation 안내
- 진학 대학별 재정 보조금 분석 리포트를 통한 대학 선택폭 확대
- 학자금 융자 서비스 (Plus Loan 및 Student Loan 등)